

현대중공업지주 267250

현대중공업 그룹 IR 미팅 후기

조선/기계

Analyst 김현
02. 6098-6699
hyun.kim@meritz.co.kr

현중지주)

계열사에 대한 브랜드수수료 등 내부거래 수익 없음. 자체사업과 자회사 배당금만 수익원. 따라서 지주회사 중 규제이슈가 없는 유일한 지주사.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며, 성장은 엔지니어링과 친환경 Retrofit에서 창출

그룹지배구조 이슈)

- 오일뱅크는 재무제표 정정 완료, 7/11일 상장예비심사청구 예정. 연내 상장 예정.

-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중지분 3.93%는 지주가 매입할 가능성 높음(3Q 해소예상)

- 지주-현중-삼호-미포(지분 42.3%) 증손자 고리 해소도 3Q내 최종처리안 결정 예정. 현대중공업은 No Action. 시장충격이나 자금소요 최소화할 것이며 단순한 합병은 아닐것

주주환원정책)

- 지주부터 19년 3월 배당할 것임. 타 지주사보다 배당을 많이 할 계획이며, 자회사들도 수익을 창출하면 각자 배당하는 것이 원칙. 시가배당률은 타 정유사보다 낮지 않을것.

- 액면분할이나 무상증자 등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조만간 결정, 발표할 계획

수주)

- 삼호는 수주목표를 거의 달성, 미포가 상대적으로 수주가 작아보이나 이는 선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확보의 과정이었음. 시장이 충분히 정화되었고 선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며, Feeder급 컨테이너선 수주 지속과 하반기 MR탱커 수주회복으로 연간 수주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

- 현대중공업 본사도 하반기 LNGC, 컨테이너선 및 탱커 수주로 연간 목표 달성 충분함

메리츠 결론)

시장/주주친화적인 정책을 3분기에 본격화 할 것이며, 오일뱅크는 상장예비심사 청구로 연내 상장관련 불확실성 해소 기대. 현대미포조선의 현증지분은 지주의 매입이 유력하며, 증손자 이슈는 삼호-미포의 단순합병이나 중공업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은 희박. 주주가치에 훼손(현금유출 등)을 야기하는 액션은 안할 것. 액면분할 등을 통해 유통주식 증대+배당으로 시장 노이즈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7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현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